

# 성삼문선생 유허비 (成三問先生 遺墟碑)

연 대\_1668년(조선시대) 추정  
크 기\_높이 251.5cm, 폭 76cm, 두께 25cm

지정번호\_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64호  
소 재 지\_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노은리 104-2



성삼문(成三問, 1418~1456)은 집현전 학사로 수양대군이 단종을 내쫓고 왕위에 오르자 단종 복위를 추진하다가 능지처참을 당한 사육신(死六臣)이다. 단종 복위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육신은 성삼문과 더불어 박팽년(朴彭年, 1417~1456), 하위지(河緯地, 1412~1456), 이개(李垧, 1417~1456), 유성원(柳誠源, ? ~ 1456), 유응부(兪應孚, ? ~ 1456) 등 6명이고, 이중 충청권과 관련있는 인물은 성삼문, 박팽년, 이개다. 사육신에 대한 신원은 의리를 내세운 명분론이 강조되면서 조선후기 절의의 상징으로 본격화되었다.

충청도 홍주 노은동(現 홍성 노은리)은 성삼문의 외가로 그의 출생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연고로 홍성의 노은리는 성삼문에 대한 신원(伸冤)이 이루어지면서 유허지로 부각되었다. 그의 사후 노비가 된 부인이 손수 제작한 성삼문 신주가 1672년(현종 13) 인왕산에서 발견된 후, 우암 송시열이 성삼문 신원에 앞장섰다. 그후 1676년(숙종 2) 홍성 노은리에 사육신의 절의와 덕을 추모하기 위해 사우가 설립되었고, 1692년(숙종 18)에 조정으로부터 녹운서원(綠雲書院)으로 사액을 받았다. 이후 노은서원(魯恩書院)으로 개칭되었다가 대원군 서원 철폐시 훼손된 후 사육신의 신주를 매안한 노은단이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유허비는 옛 선현의 자취가 있는 곳을 후세에 전하고 그것을 계기로 추모하기 위해 만든 비석이다. 성삼문선생 유허비는 관찰사 민유중(閔維重)이 성삼문 유허를 돌아보고 돌로 추모의 표시를 하였는데, 이후 송시열에게 부탁하여 비문을 짓게 되었고, 김진상이 글씨를 쓰고 유척기가 글씨를 새겨서 비석으로 세워진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명분과 절의'가 무엇인지 성삼문 유허비를 통해 생각해 볼 일이다. 유허비는 1984년 5월 17일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164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